

날 더워지자...영유아 수족구병 급속 확산

수포·고열...방치면 생명 위협
광주지역 발생 건수 평년 2~3배
위생 지키고 의심면 병원 찾아야

에 수포가 생기거나 고열을 동반한 수족구 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1일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까지 수족구병 검사 건수는 93건이며, 이 가운데 양성 건수는 75건으로 80.6%의 검출률을 보였다. 이는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검출률이다.
최근 3년간 올해 수족구병 의뢰 건수가 가장 많았고, 작년과 비교해 검사 건수와 검출률이 2배 가량 높아졌다.
올해 5월 69.6%(23건 검사에 16건 양성)의 검출률을 보이다가 6월에는 83.0%(53건 검사에 44건 양성)로 뛰었다.

수족구병은 보통 5월 말부터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 올해는 3월부터 증가해 현재까지 높은 검출률을 보인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올해 양상으로 나타난 수족구병 검체 75건 중 38건의 유전형이 엔테로바이러스 71형으로 나타났다. 중추신경계에 감염되면 마비, 뇌염 증상을 일으키고 폐수종을 유발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수족구병은 주로 날이 더워지는 6월부터 늘기 시작해 여름철에 유행하며 3~7일간의 잠복기 후에 손, 발, 입안에 수포성 발진과 함께 고열이 나타나고 구토나 설사 증상이 동반된다. 발진의 경우 손, 발 이외

에도 엉덩이, 사타구니, 몸통까지 넓게 생겨 두드러기, 돌발성 발진 등과 혼동해 이를 방치할 경우 증상을 더 악화시키고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어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기해영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수인성 질환과장은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유전자형이 다양해 현재까지 예방 가능한 백신이 없다. 수족구병이 의심되면 즉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등원이나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주로 영유아들이 걸리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키즈카페 등은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고, 집기 소독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천변 수줍게 핀 원추리꽃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질 1일 광주시 서구 양동 광주천변에 피어난 원추리꽃 너머로 우산을 쓴 시민들이 산책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5개구 세계수영대회 손님맞이 막바지 준비 박차

숙박·식음업소 등 집중 점검
오는 12일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을 앞두고 광주지역 5개 자치구가 막바지 손님맞이 준비에 나서고 있다.
광주시 5개구는 "2일부터 11일까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대비해 우수 숙박업소와 여성안심 숙박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수영대회 지정숙박업소 27곳 중 16곳이 관내에 집중돼 있는 서구는 합리적 요금 게시 여부, 객실 청결도, 친절서비스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나머지 자치구도 오는 5일까지 지역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가격 안정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대상은 광주시 지정 크린 호텔 22곳, 크린숙박업소 84곳 등 시가 지정한 지역 우수 숙박업소 총 106곳이다.
캠페인을 맡은 공무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감시반은 매일 우수 숙박업소를 찾아 요금표 게시 여부, 과다한 숙박 요금 징수 여부 등을 점검하며 광주시 숙박업소 가격 안정화를 유도하고 있다.
또 불친절을 예방하기 위해 외국 손님 응대 요령과 120빛고을콜센터 안내 등 종업원 친절교육도 진행 중이다.

광주출신 배용주 수사국장
경기남부 경찰청장 승진 내정
경찰 치안정감·치안감 인사

광주출신인 배용주(56·경찰대 2기·정광고·사진) 경찰청 수사국장직이 경기남부경찰청장으로 승진·내정됐다.
정부는 1일 이윤표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서울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으로 전보·내정하는 등 경찰 치안정감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준성 경찰청 보안국장은 경찰대학장으로, 김창룡 경남지방경찰청장은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 배용주 경찰청 수사국장은 경기남부경찰청장으로 각각 승진과 함께 내정됐다. 임호선 경찰청 차장과 이상로 인천지방경찰청장은 유임됐다.
경찰청장(치안총감)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은 경찰 조직 내 6명으로,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으로 꼽힌다.
이번 인사로 치안정감 6명 중 경찰대 출신은 4명, 간부후보 출신은 2명이 됐다. 지역별로는 영남 3명, 충청 2명, 호남 1명이다.
정부는 이날 치안감 승진 및 치안감 직위 직무대리 인사도 함께 했다. 치안감은 치안정감 아래 계급으로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를 뺀 나머지 13개 지방청장과 본청 국장급 계급이다.
본청에서는 강진출신인 김남현(54·경찰대 2기·금고) 자치경찰추진단장과 이규문 수사기획관이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전북 전주 출신인 진교훈 정보관리부장을 비롯한 이문수 보안부장, 이명교 수사부장, 진정무 교통지도부장, 이영삼 생활안전부장이 치안감 승진 대열에 합류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교육부 유아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유치원을 폐원하려면 각 시·도 교육감이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교육부는 "유치원 폐원 기준을 교육감이 정하는 방향으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감이 유치원 폐원을 인가할 때 '폐쇄 연월일의 적절성, 유아 지원 계획, 학부모 의견, 그 밖에 유아 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고, 세부사항은 시·도 교육 규칙으로 법제화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
한편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 167명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과 관련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최근 원고 중 22명이 소송 취하 의사를 밝혔다"면서 "사립유치원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정적인 유아 교육을 위한 기초로,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의 93.7%(532곳)가 이미 에듀파인으로 지출을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2, 해질 19:51, 달뜨기 04:36, 달지기 19:21
본격적인 무더위
낮부터 맑아져 자외선 강해졌다.
◇바다 날씨
◇생활지수
◇물때
◇주간 날씨

유치원 폐원요건 시·도 교육감이 정한다

교육부 유아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유치원을 폐원하려면 각 시·도 교육감이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교육부는 "유치원 폐원 기준을 교육감이 정하는 방향으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감이 유치원 폐원을 인가할 때 '폐쇄 연월일의 적절성, 유아 지원 계획, 학부모 의견, 그 밖에 유아 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고, 세부사항은 시·도 교육 규칙으로 법제화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
한편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 167명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과 관련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최근 원고 중 22명이 소송 취하 의사를 밝혔다"면서 "사립유치원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정적인 유아 교육을 위한 기초로,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의 93.7%(532곳)가 이미 에듀파인으로 지출을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무등산전망대~금곡마을 10km 구간 노후도로 포장

광주시 북구는 "포트를 등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무등산 국립공원 내 일부 노후도로를 이달까지 정비한다"고 1일 밝혔다.
북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 이달 초까지 무등산전망대-원효사-총장사-금곡마을 총 10km 구간의 노후도로를 재포장할 계획이다.
무등산 국립공원 진입도로인 무등로

전원주택 매매

신축건물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190-1, 190-6, 190-7

유명한 풍수가 추천해준 곳, 수맥이 전혀 흐르지 않은 명당 중에 명당이며 선착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거실에서 바다가 훤히 보이는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 190-6번지면적: 810㎡, 건평: 83㎡, 매매가: 1억8천4백만원
- 190-7번지면적: 810㎡, 건평: 83㎡, 매매가: 1억8천4백만원
- 190-1번지면적: 660㎡, 건평: 83㎡, 매매가: 1억7천5백만원

☎ 010-4061-7200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지붕공사: 슬라브 옥상, 주택, 상가 원룸, 데스리, 한옥 등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